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 그 과거와 현재

김성규* · 박성창** · 안용희*** · 차익종****

I. 서론

서울대학교는 21세기를 맞아 대내외적인 쇄신과 변혁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그 변화의 도정 위에 서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2002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이 설립되었고, 2004년 교양교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제가 시행된 이래 그 범위가 교과목 대부분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2011년 12월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2002년 기초교육원이 설립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eTL서비스 가동을 통해 학생과 교수자 간의 온라인 교류가 보다 원활해졌으며, 2008년도부터 제2전공이 의무화된 사실도 주목할 수 있겠다. 시설 면에서도 2014년 평창캠퍼스 완공, 2015년 관정도서관과 버들골 풍산마당 준공 등 다방면의 확충이 이루어진 바 있다. 물론 서울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역사의 격동 속에서 전시연합대학 운영, 4.19혁명 및 유신반대시위 동참,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분리, 박종철 동문 고문치사 사건과 일련의 민주화투쟁 등을 경험했지만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은 이와는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¹⁾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1) 이상의 서울대학교의 변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

서울대학교의 변모는 대한민국 대학 교육 시스템 전반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 확대, 학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엄정한 평가 방식 도입, 그리고 대학의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이 이러한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인구절벽’과 ‘고용 없는 성장’, 스마트 시대 등의 여파로 전 세계적 위기에 처한 대학 사회의 대응과도 맞물려 있다.²⁾ 대학 사회의 대응은 때로는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체제 정비로도 나타나지만, 세계대학들과의 경쟁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대학의 현실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역 사회와 유리된 대학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중요한 고민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³⁾ 이러한 사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현상이 대학 교양교육 체계의 변화이다. Liberal Arts라는 이름으로 중세시대 대학에서부터 그 본질로 인식되어왔던 교양 교육이 경쟁력 확보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최근 제출된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989년 제출된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양교육은 “대학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공과목 이수에 필요한 도구과목으로서의, 그리고 학문의 기본개념과 탐구방법을 수련하는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⁴⁾ 이 보고서에서는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⁵⁾ 이는 교양교육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사실과 관련되는 한편,⁶⁾ 교양 과목의 영역 구분이 일정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부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도 맞물려

서울대학교 70년사(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참고.

- 2)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에 대해서는 김재춘, 「대학구조개혁과 고등교육 생태계」, 『한국직업자격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참고.
- 3) 안양옥, 「대학에 바란다 - 위기의 대학, 기회의 대학」, 『대학교육』 175, 2012.
- 4)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1989, 11면.
- 5) 위의 보고서, 9면.
- 6) 위의 보고서, 18-20면.

있다.⁷⁾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통합적 시각을 갖추기 위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교양교육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⁸⁾

한편, 1995년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 교양교육의 성격은 보다 명확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학문의 폭과 깊이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며 학문과 학문 사이의 연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진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⁹⁾ 이러한 인식은 서울대학교가 대학원중심 대학을 표방하면서 일본의 동경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의 교양교육체계에 주목한 사실과도 관련된다.¹⁰⁾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영역별 교과 구분을 그 성격에 따라 핵심 교양, 학문의 기초, 일반교양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¹¹⁾ 또한, 1945년에 제출된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인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에 근거하여 일반교육과 자유교육을 두 축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교양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사교육원’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2002년 기초교육원 설립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2016년에 발간된 「기초교양교육 현황분석과 발전과제 탐색 연구」가 있다.¹²⁾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으로서 『학문의 기초』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교과영역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2014년 시행된 기초교양교육과정 개편과 연계되어 대학 글쓰기 교과운영의 현재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

7) 위의 보고서, 21-3면.

8) 위의 보고서, 33면.

9)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1995, 1면.

10) 위의 보고서, 1면.

11) 위의 보고서, 2-3면.

12) 「기초교양교육 현황분석과 발전과제 탐색 연구: 『학문의 기초』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6.

이 주요한 방법적 틀이 되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글쓰기 교과목들 사이의 비교 등을 실제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크다.

해방기 이후 수정, 보완된 교육법시행령이 1954년 공포된 이래 대학교육에서 국어 교과목은 오랫동안 필수 이수 과목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변모의 과정을 겪어왔고, 그 산물이 현재의 대학 글쓰기 교육 체계인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글쓰기 교과목 역시 1946년 개교 이래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를 시도해왔으며, 현재의 글쓰기 교육 체계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실험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교과목으로서의 ‘글쓰기의 기초’는 가장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교양교육 체계의 개편으로 새롭게 선보인 강의이다. 2014년 개편으로 기존의 필수 교과목이던 국어 교과가 단과대학별로 글쓰기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선택적 필수 과목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즉, 2014년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개별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학국어’ 선이수(先履修) 규정을 폐지하고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등과 함께 ‘사고와 표현’으로 묶여 단과 대학별로 교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국어’라는 기존의 명칭뿐만 아니라 글쓰기 교육의 체계 내에서 해당 교과목이 차지하는 역할 역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의 일련의 다양한 대응들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선택권 존중이라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 약화라는 문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는 커다란 변화를 시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하겠다.¹³⁾

2006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편찬한 『교양교육 60년사』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의 기초교양교육에서의 중심원리로 ‘융화’와 ‘개방’을 내세우고

13)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등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과 교류, 소통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끊임없는 실천적 활동이 전제된다고 하겠다.¹⁴⁾ 독해 중심의 교육에서 작문 영역의 도입을 넘어, 교과목의 명칭 자체에서 글쓰기 활동을 부각시킨 대학 글쓰기 교과목의 성격 변화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변화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 얼마나 현실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를 체계화 하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변화와 도전의 시점에 서울대학교 내 글쓰기 교육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 대학 사회에서 글쓰기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피는 기초 작업인 동시에, 향후 교양교육의 체계에서 글쓰기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이 변화의 움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김성규, 박성창 등을 비롯한 4명의 연구팀을 꾸려 2016년 6월부터 2016년 8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 국내외 대학에서 시행되는 글쓰기 교육의 모델, 그리고 향후 글쓰기 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01년도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 이어 15년 만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1년도 이래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변화를 검토하는 의미도 지닌다고 하겠다.

II. 교양교육의 현재와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정체성

앞서 말했듯이 서울대학교는 2014년 기초교양교육과정 개편을 감행하고, 글쓰기 교육은 ‘학문의 기초’ 영역 중 ‘사고와 표현’에서 담당하도록 개편하였다. ‘학문의 기초’ 영역은 ‘사고와 표현’, ‘외국어’, ‘수량적 분석과 추론’,

14) 이장무, 「기념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iv면.

‘과학적 사고와 실험’, ‘컴퓨터와 정보 활용’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글쓰기는 ‘사고와 표현’에 편성되어 있다. ‘사고와 표현’은 다시 제1영역과 제2영역으로 나뉘고 제1영역이 글쓰기, 제2영역은 ‘말하기와 토론’, ‘창의적 사고와 표현’, ‘논리와 비판적 사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핵심교양’은 ‘학문의 세계’로, ‘일반교양’은 ‘선택교양’으로 명칭과 성격이 다소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¹⁵⁾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고와 표현’ 영역은 “학문활동에 필요하며 추후



〈표 1〉 2014년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및 ‘사고와 표현’ 영역별 구성

15) 「기초교양교육 현황분석과 발전과제 탐색 연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6, 11-13면.

지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읽기 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각 학문분야의 전통과 양식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말과 글을 통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 즉, 기본적인 읽기 능력과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전공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글쓰기 교과목으로는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가 있다.

국어국문학과에서 개설되는 ‘글쓰기의 기초’는 이전의 ‘대학국어’ 교과목과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으로 해방 이래 국어국문학과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온 ‘교양국어’, ‘국어작문’의 맥을 잇고 있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대학에서의 학습 능력뿐 아니라 사회의 지성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소양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인문학 글쓰기’ 등은 그 학습목적에서 각각 의사소통 능력, 사회과학, 과학 기술 등을 주요한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어 개편 이전의 분야별 글쓰기로서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편이다. ‘글쓰기의 기초’와 다른 글쓰기 교과목이 내세우는 학습 목표를 검토하면, 여전히 2014년 개편 이전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3학점 필수, 3학점 선택’의 글쓰기 교육 체계가 ‘3학점 필수’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제기된 대내외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분명 해방 이후 대학 글쓰기 교육을 포함한 국어 교육은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성인의 교양을 함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텍스트를 활용해 국어 교육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과정에서 중요시되어 것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전범의 모델에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그 틀에 맞추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하겠다.¹⁷⁾ 이러한 교육 방법이 한때는 교육과 연구

16) 위의 보고서, 15면.

17)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문식성’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희모, 「작문 연구의 방향과 전망」, 『작문연구』 18, 2013. 7, 11-5면.

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크게 보아 교양교육 전체가 현재의 사회적 흐름 안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미군정기 고등교육 운영 과정에서부터 교양교육의 목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지식인의 소양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대학교육에서 보다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통정(統整)된 인격형성과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교양적 기초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언급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¹⁹⁾ 대학 교양교육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지점이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1970년대 교양교육은 대학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²⁰⁾ 서울대학교의 경우, 여기에는 1968년 교양과정부의 설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²¹⁾ 초기 교양교육의 목적에 더하여 “학생 상호 간의 인격적 교류를 도모하는 등”²²⁾ 그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 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재단 교양교재편찬위원회의 설치였다.²³⁾ 서울대학교는 1980년에서 81년에 걸쳐서도 교양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 교양교육의 의미를 “단순히 전공 이외의 학문에 접하도록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전공 학문을 더 깊이 공부하고, 폭 넓은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학문에 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였다.²⁴⁾ 하지만, 1989년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어 교육은 여전히 ‘전공교육의 기초’로서 ‘도구적인 성격’으로 인

18)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27면.

19) 중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 1967, 35-6면(위의 책, 42면 재인용).

20) 여기에는 교양교육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미숙, 「교양국어 교육 변천과정 연구」, 『인문연구』 71, 2014, 8, 148-9면.

21)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57-82면 참고.

22) 위의 책, 62면.

23) 위의 책, 66면.

24) 위의 책, 101-2면.

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²⁵⁾

1990년대에도 교양교육을 비롯한 대학 교육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그 중 1995년 4월에 작성된 「교양 교육의 개선방안 연구」는 교양과정부 폐지 이후 교양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학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²⁶⁾ 여기에서는 교양 과정을 전공 과정의 선행 과정으로 이해하는 대신, 전공 과정과 대등한, 대학 교육의 독자적인 부분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대학 교양교육의 정신으로서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과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²⁷⁾ 이를 토대로 하여 “서울대학교의 학부교육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와 역시 지나치게 세분된 교과목 설정으로 창조적인 인력을 길러내는 데 적합지 못한 체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²⁸⁾ 이에 대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주로 핵심교양 과목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때 제시된 전체적인 개선 방향의 취지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 ‘분석적이고 조직적이고 개념화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글쓰기 교과목의 목표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글쓰기’라는, 수행성을 강조하는 교과목 명칭은 오랫동안 교양교육 체계에서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기간으로 봤을 때도 서울대학교의 국어 교육이 ‘읽기’ 중심에서 ‘쓰기’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2001년도 1학기부터 기존의 ‘국어작문’을 ‘대학국어’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론과 실습을 각각 두 시간씩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 것은 이러한 흐름을 명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 이전인 1991년에 ‘국어작문’으로 과목 명칭이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작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는 담당교수별로 커리큘럼이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글쓰기가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으로 고려된 것은 2000년

25)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1989, 20-1면.

26)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115면.

27) 위의 책, 115면.

28)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1995, 27면.

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학기에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교육적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학과 차원의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다.²⁹⁾

이러한 개선의 노력과 함께 대학 당국에서도 기초교육원을 건립하고 대학의 기초 교양교육 전반을 관장하게 하였다. 기초교육원 설립 이후 2002년도부터 시행된 새로운 기초 교양교육은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편성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소양과 학문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³⁰⁾ 이런 목표 아래 ‘글쓰기의 기초’ 교과목은 지식인의 소양과 학문연구자의 기본적인 능력, 양쪽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의 국어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그 고민의 과정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III.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의 변모 과정

1. ‘교양국어’에서 ‘국어작문’까지

서울대학교 내 글쓰기 교육이 거처온 변화 과정은 교양교육 조직이 통합과 분산을 오가는 과정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서울대 개교 당시 문리대 중심의 통합적 교양교육체제에서 단과대학별 분산구조로 전환했다가 1956년에서 59년 사이에 문리대 교양과정부로의 부분적 통합구조와 단과대학별 분산구조의 이원체제를 거친 후, 1959년부터

29) 「2001년도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1.

30)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123면.

1967년까지의 시기에는 분산구조로 재복귀했다가, 1968년에서 1974년까지는 공릉동 교양과정부로 재통합 과정을 거친다. 이후 1975년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통합적 분산구조를 이루다가 1989년 교양교육 주도권이 정부로부터 대학당국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체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02년 기초교육원의 출범에 따라 분산적 통합구조를 시도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다.³¹⁾ 여기에서 교양교육이 단 몇 년간의 교양과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각 단과대학의 주관 아래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그 체계가 정비 중에 있지만 기초교육원의 설립은 앞선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³²⁾

‘교양국어’라는 명칭으로 서울대학교의 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이다. 1946년 개교 당시 국어 및 국문학 8학점을 포함한 총 28학점이 교양필수학점이었는데 그 중에서 강독, 문법, 작문으로 이루어진 국어 교과목을 필수교양으로 이수해야 할 정도로³³⁾ 국어교육은 교양교육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국어’ 시대에 주목된 것은 고등국어 수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독해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대학의 국어 교육은 독해가 중심으로 독해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글의 기준을 터득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1950년대 전반까지는 일정한 교재조차 없어서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는 현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된 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제 대학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일반국어가 현하 각 대학에서 어찌 성과를 올릴 것이냐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터이다. 대학생으로서의 우리 어문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장래 사회인으로서의 표현력과 이해력을 기르며, 아울러 문화인다운 고도의 교양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일반국어란 그 사명이 자못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교수자 각자의 견해에 따라 강의되고 있음은 우려할 실태라 하겠으니, 여기에는 각 대학의 학점수가 다르고, 강의 내용이 혹은 고전에 치우치고, 혹은 문

31) 위의 책, 5-6면.

32) 교양과정부에 대한 평가와 그를 통한 ‘학사교육원’(지금의 ‘기초교육원’) 설립에 대한 주장은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1995 참고.

33)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33면.

법에 지나치고, 혹은 전문강의가 되고, 혹은 쉬운 교재에서 학생을 놀리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적당한 교재가 없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대학국문선』(1954, 초판) ‘머리말’ 중에서³⁴⁾

이상에서 보듯이, 이 당시 대학에서 국어 교육을 담당하던 교수자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어문지식과 사회인으로서의 표현력과 이해력, 그리고 문화인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일반국어’가 실시되고 있으나, ‘적당한 교재가 없음’으로 강의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함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서울대학교에서는 1954년 초판이 발행된 『대학국문선』에 다양한 글을 싣고 학문의 기초를 위한 소양을 폭넓게 함양한다는 취지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대학국문선』 초판은 이승녕을 대표로 한 서울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가 편저자로 나서 집필하였다. 책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으나, 그 초판의 구성을 보면 대략적인 틀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학국문선』 초판의 내용을 보면, 크게 고전편과 현대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전편이 구분 없이 제시된 데 비해, 현대편은 ‘평론·수필’, ‘시’, ‘소설’로 글의 유형을 나누어 싣고 있다. 고전편에서는 「금강경언해», 현대편에서는 고유섭의 「한국 고미술론», 박종홍의 「실존주의와 현대철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글은 문학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국문선』의 내용은 문학에 편중되어 다양한 영역의 글을 실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 당시 국어 교육의 목표가 분과학문의 기초과정에 속하여 도구적 성격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어문 지식’을 확보하



〈그림 1〉 『대학국문선』 초판(1954) 표지

34) 이하 인용의 경우, 원래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였다.

고자 하는, 지극히 분과학문적 교과목 목록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들도 「머리말」에서 「교수자의 태도와 교재 연구 여하에 따라」 「이학계의 학생」이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내용상의 미흡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하지만, 이러한 문학 위주의 교재 구성이 단순히 교수자 중심의 편에 따른 것이 아님은 2년 후 발간된 『신판 대한국문선』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신판 대한국문선』(1957) 표지

여전히 문학 중심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현대편의 ‘평론·수필’ 부분에 유진오의 「학문의 길」, 아놀드 토인비의 「고대 그리스사의 인간관」, 최문환의 「사회사상의 제 유형에 관한 서설」, 김준섭의 「실존철학」, 권영대의 「과학하는 심상」 등 여러 분과학문의 글을 대대적으로 싣고 있다. ‘평론·수필’의 상당수가 어문학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평론·수필’을 제외하고는 시, 소설, 희곡, 고전문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강의를 하여 그 성과와 결함을 찾기에 노력”한 결과, 『신판 대한국문선』에는 다양한 영역의 글이 포함될 수 있었다.³⁶⁾

저자들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교양국어에 대해 펼친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교양국어=문학’이라는 당시 학생들의 인식은 확고해 보인다.³⁷⁾ 다각적인 변화의 움직임에도 학생들은 교양국어를 비롯한 교

35) 이승녕, 「머리말」, 서울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편, 『대학국문선』, 을유문화사, 1954, 1면.

36) 이승녕, 「신판을 내면서」, 서울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편, 『대학국문선』, 을유문화사, 1957, 5면.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발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56년 개정판에서 이미 ‘신판’의 상당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실물을 확인한 1957년 『신판 대한국문선』을 참고하였기에 ‘신판’을 ‘초판’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양교육이 고답적, 사변적, 형식적,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기 일쑤였다.³⁷⁾ 이는 당시 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상계』 등의 잡지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당대의 교양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³⁸⁾ 그런 점에서 교양과목은 그 지향과는 달리 도구적인 기초과목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당시 『대학국문선』에 실린 유진오나 최재서의 「학문의 길」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식이다.⁴⁰⁾

1965년 서울대학교 ‘교과과정연구위원회’가 작성한 국어 교과와 목표에 따르면, 그것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효과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국어 교과와 내용에 ‘읽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표 2〉 『대학국어』(1968)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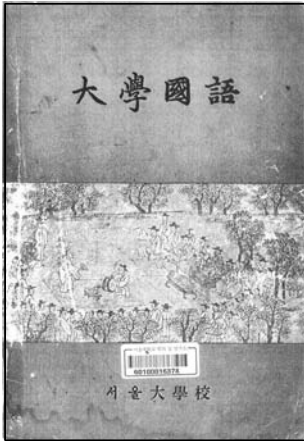
제1부	제2부
I. 대학생활의 출발	I. 체험과 창조
II. 어떻게 읽을 것인가?	II. 사색과 탐구
이해와 감상	III. 사회와 국가
III. 어떻게 쓸 것인가	IV. 인간과 자연
문장의 기초	V. 미를 찾아서
정확한 표기	VI. 기술과 개발
문장 작성법	
IV. 어떻게 말할 것인가	부록
화법의 기초	사전사용법
토의와 토론	도서관이용법
예절과 인사	상용한자
화법의 실제	활자호수
V. 우리의 말과 글	

37) 이에 대해서는 박숙자, 「제도로서의 문학: 1950년대 ‘교양’으로서의 「대학국어」」,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4, 453-4면 참고.

38) 「대학교양교육 반성의 소리 높다」, 『동아일보』, 1963. 5. 27.

39) 박숙자, 앞의 글, 462-4면.

40) 위의 글, 457-9면.



〈그림 3〉 『대학국어』(1968) 표지



〈그림 4〉 『대학작문』(1971) 표지

그것은 국어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⁴¹⁾ 그럼에도 실제의 교과목 운영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띤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교재로 활용된 책의 구성과 표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구성에서 드러나듯이, 『대학국문선』과는 다르게, 이 당시 『대학국어』에서는 ‘읽기’와 ‘쓰기’, ‘말하기’로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읽기 자료를 배치한 ‘제2부’에서도 글의 주제가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책의 편저자들은 이전의 ‘교양국어’ 교재가 ‘자료 중심의 사화집(詞華集)’의 성격이 강했음을 인정하고, “대학국어의 목적이 〈이해〉와 〈표현〉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⁴²⁾ 특히, 〈표현〉을 ‘쓰기’와 ‘말하기’로 구분하여 그 방법론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라든지, 자료 활용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부록에 사진사용법이나 도서관이용법을 배치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⁴³⁾

41)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48면.

42)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분과위원회 편, 「책머리에」,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그 이전에도 쓰기에 대한 내용이 국어 교재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수사학, 문장론의 차원에서 글쓰기가 다루어졌다. 신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 30, 2005. 12, 50-1면.

이러한 흐름은 1971년 『대학국어』와 『대학작문』의 교재를 이원적으로 출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⁴⁾ 두 책의 구성만 보자면, 앞서 한 권으로 묶여 있던 〈이해〉와 〈표현〉 영역을 완전히 별개의 책으로 구성하여 두 교재를 효율적으로 연관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권으로 이루어진 『대학국어』와 『대학국어』, 『대학작문』이 별도로 이루어진 점을 제외하고는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작문분과위원회’가 편저자로 나서 제작한 『대학작문』은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3년 기초과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기초 교과과정 편성상의 주요 원칙에서도 드러난다. 즉, 이에 따르면, 3학점으로 필수이수과목인 ‘국어’는 “문장이해 2학점, 작문 1학점 계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⁴⁵⁾ 여기에서 문장이해란 곧 ‘독해’를 의미한다. 별도의 활동에 별도의 학점을 배점함으로써 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그렇지만, 실제 교과목 진행에서는 작문 강의를 통해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을 배우기보다는 학생 개인이 주어진 주제에 따라 ‘임의로’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70년대 들어와 학점 구조나 교재 구성에서 대학의 국어 교육이 국어와 작문의 분리로 쓰기가 강조된 것처럼 보임에도 결국 글쓰기가 “원고지 사용법이나 논문 작성법, 수사학 등”을 강조하는 차원에 그친 것이다.⁴⁶⁾

특기할 점은 1981년에 제출된 「대학 기초과정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미 국어 및 작문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반복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재 및 교수 방법을 실용성 있게 개선할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⁷⁾

43) 이러한 흐름에서 ‘논문작성’에 관한 내용 등이 ‘대학국어’ 교재에 포함되는데, 이는 1960년대 대학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김정남, 「대학의 글쓰기에서 학문적 글쓰기 교과목의 위상」, 『한국언어문학』 81, 2012. 6, 317-8면.

44) 여기에는 국어 6학점 필수 이수 방침을 마련한 문교부의 조치도 한몫 했다. 조미숙, 「교양국어 교육 변천과정 연구」, 148-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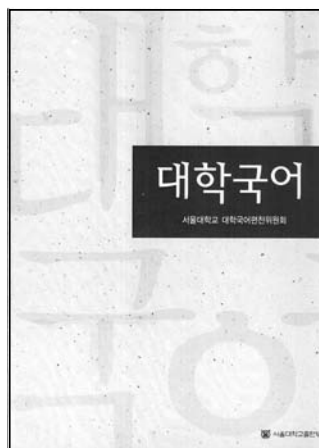
45)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91면.

46) 이상갑, 「대학 어문 교육의 방향」, 『어문논집』 39, 민족어문학회, 1999. 2, 478면.

물론 이때의 ‘실용성’이 가리키는 바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독해 위주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1989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교양교과목 개요에서 ‘국어작문’ 교과목에 대해 “작문 구성의 원리를 이해”, “독서자료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분석의 모형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⁴⁸⁾ 여전히 국어작문은 모델에 충실한 글쓰기를 이상적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국어’,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본격화

2000년대 들어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글쓰기 과정에 대한 강조에 있다. 이는 비단 서울대학교만의 변화가 아니다. 1990년대까지의 대학 교양국어에 대한 우선순위를 논의한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대학의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 및 언어의 바른 이해나 문학의 이해, 정서 함양 등이 중요한 위치를 오랫동안 차지해왔다.⁴⁹⁾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대학들은 글쓰기 교육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작문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⁵⁰⁾ 그러한 호



〈그림 5〉 『대학국어』(2004) 표지

47)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앞의 책, 103-4면.

48)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1989, 61면.

49) 이상태, 「대학 교양 국어 시행의 현황」,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11.

50) 김성규, 「대학 교양 국어과 국어 정책」, 『새국어생활』 22권 2호, 2012 여름, 9면. 이러한 대학사회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점과 관련되기도 하다. 송주현, 「대학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발전적 수업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10권 1호, 2016. 3, 267-8면.

름에서 “글의 계획 단계부터 글의 완성 단계까지를 몇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유형”으로 글쓰기 교육을 구성한 것이다.⁵¹⁾

2001년 기존의 ‘국어작문’은 ‘대학국어’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의와 실습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글쓰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획기적 변화를 도모한다. 이 변화가 획기적인 이유는 ‘글쓰기’를 ‘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하고 이를 개별 수업에서나 연습할 수 있었던 기존의 강의와는 달리 강의 내의 활동을 통해 한 편의 학술적 글쓰기 활동을 완결할 수 있게 시도한 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글쓰기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강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책의 구성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잘 드러나듯이, 2004년에 발간한 『대학국어』에서는 크게 내용을 3부 체제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체적인 분량이나 구성에서 눈에

<표 3> 『대학국어』(2004) 목차

제1부 대학생활과 글읽기 대학생활과 글읽기	한국 고미술의 특색 비교하기
한국사상연구의 구상 글의 개요 작성하기	폭력과 윤리 분석하기
역사와 지성 글의 요약문 작성하기	1766년 홍대용의 천주당 관람 서술하기 - 서사, 묘사
제2부 대학생활과 글쓰기 대학생활과 글쓰기	훈민정음 제작의 목적 논증하기
전통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기	제3부 종합 연습 종합연습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분류하기	

51) 주재우, 「대학의 국어교육 교재 구성 원리 연구」, 『작문연구』 30, 2016. 9, 15면.

떠는 것은 ‘제2부 대학생활과 글쓰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표 2>에서 보듯이, 그 전의 ‘표현’ 영역이 ‘작문’과 ‘화법’ 두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을 다소 개략적으로 서술한 데 비해, 2000년대 이후의 『대학국어』에서는 ‘글쓰기’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덕분에 활동의 체계가 한 눈에 들어오고 ‘정의’, ‘분류’, ‘비교’, ‘분석’, ‘서술’, ‘논증’ 등 글쓰기 활동에서 다루어질 글쓰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의 이해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시 집필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전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에 서울대학교의 대학국어 교육의 변화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독해’가 중심이 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전반기까지와 ‘독해’와 ‘작문’이 중심이 된 1960년대 후반기에서 현재까지가 그것이다. 그동안 ‘작문’ 교육의 내용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작문’ 교육은 정확한 문장과 제대로 된 문단 쓰기에서 서사문, 묘사문, 설명문, 논증문 쓰기를 거쳐서 학술논문 쓰기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중략)

이전의 교재와는 달리, 이 책에서는 ‘독해’와 ‘작문’을 함께 다루되 ‘작문’에 역점을 두어 어떤 전공분야에 속하는 학생들이라도 자기 전공 분야의 학술적인 글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중략) 제2부는 자기의 생각을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기, 분류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서술하기’와 ‘논증하기’가 세부 주제가 된다. 이들 세부 주제는 크게 ‘설명’과 ‘논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서술 방법을 중요하게 취급한 것은 대학생활에서의 글쓰기란 학술적인 글쓰기이며 학술적인 글을 쓰는 데에는 ‘설명’과 ‘논증’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 『대학국어』(2004) ‘머리말’ 중에서

이전에도 서울대학교의 국어 교육에서 ‘작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작문’은 ‘독해’와 더불어 국어 교육의 명백한 한 축이었던 것이다. 학술논문 작성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 글쓰기의 중요성은 적어도 체제 구성에서는 명백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작문 교재의 분량이나 구성이 방대한 데 비해 그 서술 체계가 지나치게 번잡했다는 사실에 있었을 것이다.

가령, 2004년 『대학국어』 출간 이전에 교재로 활용되던 『대학국어』(2001)의 구성을 보면,⁵²⁾ 크게 ‘대학생활과 학문’,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 ‘우리 말과 글의 이해와 운용’, ‘논문 작성의 실제’ 등 네 단원으로 나누고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 ‘논문 작성의 실제’ 등 두 부분에서 글쓰기 활동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설명 뒤에 너무 많은 예문(각각 16개와 9개)을 두고 있어 강의의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물론 이러한 예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교수자의 역량에 달려 있겠지만, “여기 실린 모든 과목을 3학점 한 학기에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집필진의 진단에서 알 수 있듯이,⁵³⁾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그 내용의 방대함은 압박감으로 다가올 정도였다.

반면, <표 3>에서 보듯이, 새롭게 펴낸 『대학국어』에서는 하나의 예문을 중심으로 하나의 글쓰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언급은 ‘학술논문 쓰기’가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표 변경에는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그리고 대학 사회 내의 변화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1990년대 대학별 교사가 부활하면서 논술시험이 시행되던 시기와 달리 논술시험의 의의가 의문시되고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입생들의 작문능력이 매우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졸업논문을 쓰는 대학이나 학과가 거의 없어져서 학부생들이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⁵⁴⁾ 이처럼, 대학 내외에서 글쓰기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학국어』 저자들은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이해력’과 ‘표현력’을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2) 실제 이 교재의 내용은 1991년도에 작성된 것을 개정판으로 낸 것이다. 따라서 강의 방식의 변화에 앞서 이미 1990년대 ‘국어국문학적 지식’을 벗어나 다양한 분과학문에서의 학술논문 ‘쓰기’에 초점을 맞춘 교재가 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53)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머리말」,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iv면.

54)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머리말」,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ii-iii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2001년 1학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교육적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01년도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국어1’과 ‘국어2’로 나누어 진행한 이 시기 대학국어 수업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효과적인 활동지도가 두드러진다. ‘국어1’ 수업에서는 특히 고전 읽기 교육을 강조하고 ‘국어2’ 수업에서는 조별 발표 및 토론을 통한 논문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어2’ 수업이 실습으로 오해 받는다는 점, 서로 다른 교수자가 진행한 두 수업 간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하는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⁵⁵⁾ 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이 스스로도 고전 읽기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띈다.⁵⁶⁾

학과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 기초적인 수준의 글쓰기에서 보다 심화된, 즉 기초 수준과 전공 영역을 매개하는 글쓰기까지 체계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는 학문영역별 글쓰기 강좌인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등을 개설하여 ‘대학국어’를 이수한 학생들이 전공 영역별로 보다 심화된 글쓰기를 익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기초-심화 단계의 설정이 글쓰기의 단계적 교육 모형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강좌 이수 자격이라는 형식만으로 연계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즉, 글쓰기 교육 시스템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림 6〉 『대학국어』(2009) 표지

55) 「2001년도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2001, 1면.

56) 위의 보고서, 38-45면.

다.⁵⁷⁾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학국어』 교재는 다시 한 번 개편의 과정을 겪는다. <표 3>에서 보듯 이전의 『대학국어』 교재에서는 각 활동에 해당하는 예문이 특정 분과학문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2009년 출간된 『대학국어』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글쓰기 방법에 세 영역(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술계열 등)의 ‘대표글’을 제시하여 서울대학교 전 계열의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으로 컬러인쇄를 가미하고 본문에서 한자 표기를 하지 않아 친근감과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의 조치는 이전의 과정중심 글쓰기로서 대학국어에 전공 영역별 글쓰기의 단계를 더한 것으로⁵⁸⁾ 기초적인 글쓰기 단계와 분과별 글쓰기 단계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IV. 대학 글쓰기의 현재와 시대적 요구

“정확한 문장쓰기에서부터 단락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 수준을 높여 가면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글쓰기 교육의 목표는⁵⁹⁾ 당연히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

1981년 보다 체계적인 과정 속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설립된 이래 학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른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2000년대부터 이것이 학계 전체에 하나의 바로미터로 작

57) 박현희,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사고와표현』 2권 2호, 2009. 11, 174면.

58) 글쓰기 단계별 교육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혁, 「대학 글쓰기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 과정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33, 534-42면.

59)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머리말」,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iii면.

동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논문 쓰기는 연구자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고, 이에 발맞춰 대학에서도 ‘글쓰기=논문 쓰기’로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⁶⁰⁾ 현재까지도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을 통상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선 『대학국어』(2004)의 「머리말」에도 천명되어 있듯이 분명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학술논문’과 ‘학술적 글쓰기’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하나의 글쓰기 교육 매뉴얼로서 기능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여전히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틀을 제공하는 방식의 획일적인 글쓰기 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폐단을 낳기 쉽다.⁶¹⁾ 또한 1990년대 이후에야 정립된 연구논문 시스템은 2000년대 이후에는 실용성이나 업적평가 관리의 측면이 강조되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용지물이 된 감이 적지 않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술할지보다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연구논문이 하나의 성과가 되어버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⁶²⁾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관찰과 사유에서 집필과 퇴고로 이어지는 반복적이고 지난한 과정을 따르기보다 먼저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틀을 모방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사유를 ‘끼워 맞추는’ 사태



〈그림 7〉 『글쓰기의 기초』(2015) 표지

60)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는 천정환,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2010. 8 참고.

61) “글쓰기의 기술과 매뉴얼을 가르치는 현재의 방식은 글쓰기의 ‘요령’을 가르쳐 줄 뿐 학습자의 깊이 있고 다양한 사유와 성찰을 확장해 주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송주현, 앞의 글, 275-6면.

62) 이런 상황에 대한 글쓰기 교육의 급진적인 시각은 김인환,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프로그램」(『어문논집』 61, 2010. 4, 17-21면)에서 볼 수 있다.

가 초래되었다. 1990년대 이래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이념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대학 교육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⁶³⁾ 문제는 이러한 논문 양산 시스템이 결국 학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듯이, 글쓰기의 틀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수법은 글쓰기 자체의 매력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로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오해가 글쓰기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배제하고 수업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할 학생들을 학술 공동체의 권위라는 경계로 오히려 소외시키고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⁶⁴⁾

이러한 대학 내외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 담당자들도 여러 대응책을 모색해왔고,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서두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2014년 ‘대학국어’는 ‘글쓰기의 기초’라는 교과목으로 바뀌고 글쓰기 교육의 전체 체계 안에서 선택적 필수로 그 지위가 변하였다(자료 1) 참고). 이에 발맞춰 교재 역시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글쓰기의 기초』라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그림 7) 참고).

2009년 출간된 『대학국어』의 체제 및 내용을 기본적인 틀로 삼되 몇 가지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논문뿐 아니라 글쓰기의 논리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글쓰기 방법으로서 논증이 보다 다각도로 조명되었고, 글쓰기의 실제 활동을 부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문을 실은 워크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 강의 운영에서는 학생들로부터 한자 암기라는 별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한자어 교육을 전면 폐지하였다. 이 모든 조치는 비단 글쓰기 교육 체계 자체 내의 고민뿐 아니라 갈수록 ‘실용성’과 ‘과학기술’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단과대학 내의 고민이 결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온라인 워크북에는 교재에 실린 계열별 예문을 보강하고 업데이트를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계열별로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수 확보해서 제공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에

63) 이상갑, 앞의 글, 472면.

64) 신선경, 앞의 글, 53면.

대한 연계는 과정 중심적 글쓰기 교육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⁶⁵⁾

‘글쓰기의 기초’ 교과목 담당자뿐 아니라 글쓰기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양 교육의 토대이자 중추를 담당하고 있기에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 전반과 관련하여 글쓰기 교육의 현황이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선택적 필수’ 교과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강좌수가 감소하였다.⁶⁶⁾

〈표 4〉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개설 강좌 수는 연 평균 10개 정도가, 수강 인원으로는 3,800여 명 정도에서 3,100명 정도로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1학과와 2학기에 개설되는 단과대학의 규모에 따라 같은 연도에 개설되는 강좌의 차이가 많게는 10개 정도에 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 수업 운영에서 고려할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수업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실제 수업시간은 2시간 30분. 학점은 그대로 3학점으로 유지)으로 줄면서 글 읽기와 글쓰기가 연계된 통합 교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⁶⁷⁾ 이는 독해와 작문을 별도의 활동으로 인식하면서도 일정한 시간 내에 소화하기에는 교재의 분량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재의 구성을 현실적으로 압축한 2000년대 이후의 혁신을 모색해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

〈표 4〉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글쓰기의 기초 개설학기별 강좌수

교과목명	학기	2012	2013	2014	2015	평균
글쓰기의 기초	1학기	72	72	59	60	65.75
글쓰기의 기초	2학기	48	49	52	50	49.75
글쓰기의 기초	여름학기	15	16	13	10	13.5
글쓰기의 기초	겨울학기	6	9	9	10	8.5
글쓰기의 기초	합계	141	146	133	130	137.5

65) 이상갑, 앞의 글, 477-81면.

66) 「기초교양교육 현황분석과 발전과제 탐색 연구」, 2016.

67) 대학의 교양국어 과목이 글 읽기와 글쓰기가 연계된 통합 교과목으로서 성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성규, 앞의 글, 5-6면.

서 어떻게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정리해야 하는지 교육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독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실제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2016년 1학기 ‘글쓰기의 기초’ 강의계획서에 따르면(〈자료 2〉 참조), 이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대학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글쓰기의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글쓰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로 정하고 그 세부목표로, “첫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글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익힌다. 둘째, 수강생의 글쓰기 실습과 담당 교수의 첨삭 및 대면 지도를 통하여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셋째, 기말 보고서를 준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킨다.”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논의했듯이 첫째 세부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제한된 수업 시간에 여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면 지도를 도입한 둘째 세부목표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 세부목표가 토대가 되어야 할 셋째 세부목표는 전적으로 교수자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셋째 세부목표의 경우, 그 실질이 말하기 능력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글쓰기 영역과 어떻게 연계시킬지도 다소 막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이밖에도 실제 강의 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앞서 강의시간이 줄어든 점과 관계되기도 한다. 즉, 현재 ‘글쓰기의 기초’ 교과목의 담당수 강좌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들의 경우, 담당 인원이 3강좌 90명에서 4강좌 100명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3

68) 이와 관련하여 대학 사회에서 글쓰기를 만능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실제 수업 내용의 괴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는 송주현, 앞의 글, 267-74면. 정희모의 논의(「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창간호, 2005. 11, 121-2면) 역시 이와 유사한 우려를 표출한 바 있다.

학점 4시간의 ‘대한국어’ 강좌를 3학점 3시간의 ‘글쓰기의 기초’로 변경하고 강좌당 수강인원은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지만,⁶⁹⁾ 책임시수(9학점 12시간에서 12학점 12시간으로 변경)라는 행정적 차원에서 새롭게 발생하게 된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이 수업 시간이 감소하면서 읽기와 쓰기의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강의교수들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담당 인원의 증가로 배가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수자의 고충은 다시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술시험’이 폐지되고 대학의 강좌들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내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개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줄 기회는 글쓰기 교과목들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 시간은 충분치 않다. 또한, 입시에서 벗어나 개인 글쓰기 능력에 대한 갈증이 고조된 학생들에게 충분히 글을 읽고 이를 글로 표현하고 교수자와 함께 이야기 나눌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조차 확보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⁷⁰⁾

물론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여러 모순적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일례로 좋은 글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달리 또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글쓰기는 더 이상 매력적인 소통 수단이 아니다.⁷¹⁾ 그럼에도 글쓰기 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정보화 사회에서 그 정보를 맥락화 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⁷²⁾ 또한, 전공에 따라서 글

69) 글쓰기 교육에서 수강 인원에 대한 문제는 주로 하버드 대학의 12명 정원을 대비적으로 논의된다(조미숙, 「교양과목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그 흐름과 전망」, 『새국어교육』 80, 2008. 12, 461면). 하지만, 수강 인원의 적정선은 먼저 교육 방식과 내용이 정립된 이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70)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표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설정과 지식 정보화 시대의 대응」, 『이화어문논집』 36, 2015. 8, 11-3면 참고.

71) 디지털 매체의 등장에 글쓰기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는 위의 글, 20-1면 참고.

72) 조미숙, 「교양과목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그 흐름과 전망」, 『새국어교육』 80, 2008. 12, 455-7면.

쓰기를 통해 자신의 학습 능력과 성과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야도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대학 글쓰기 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학 당국과 교수자이겠지만, 이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받아들이고 소화할 주체는 학생일 수밖에 없다. 우선, 어떻게 학생들에게 건너가기 위한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과 교수자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V. 마치며

2016년 하반기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고 하나의 논문으로 연구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에도 교양교육 체계와 글쓰기 교육 체계에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존재 의의와 본질 자체를 점검해야 하는 최근의 급격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처럼 급격하고 혼란스러운 길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글쓰기 교육의 혁신과 교육 방식의 체계화라는 다소 모순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도전적 시기임에 분명한 것이다. 이제 글쓰기 교육을 비롯한 대학의 교양교육이 진리탐구와 실용성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지는 대학을 둘러싼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⁷³⁾ 그럼에도 한 가지 틀림 없는 사실은 2016년 현재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대두를 논의하면서도 자신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 독자적으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⁷⁴⁾

73) 최경호·박정미, 「대학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국어문학』 54, 2013. 3, 385-6면.

74) 이는 임흥배,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글쓰기 교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 기초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무엇보다 글쓰기 교육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체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영역에까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합의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⁷⁵⁾ 이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교육 체계에서 결국 쓰기로만 모든 교육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읽기를 통해 새로운 쓰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⁷⁶⁾ 교양에서의 확장과 전공에서의 심화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대학 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가 어떻게 전공 교과와 글쓰기까지 연계될 수 있을지 학문 분야 간의 총체적이고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⁷⁷⁾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결국 대학이 글쓰기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⁷⁸⁾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글쓰기 과목이 진정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도구도 필요하다.⁷⁹⁾

225-6면에서도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목표로 명시된 바 있다.

- 75) 이와 관련하여 글쓰기 능력의 전이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윤빈,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대안적 교육 방안 검토」, 『작문연구』 24, 2015. 3)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6) 이상갑, 앞의 글, 478면. 정희모도 이를 주목할 만한 글쓰기 교육 모형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2005. 11, 125-7면.
- 77) 김경남(앞의 글, 303-4면)에서는 ‘학술적 글쓰기’ 대신 ‘학문적 글쓰기’를 대학 글쓰기의 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나, 후자가 학문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이를 포함하면서도 그 이외의 영역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학술적 글쓰기’가 현재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는 보다 적합해 보인다.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미국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그를 통한 방향성의 제안으로는 이윤빈,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작문연구』 14, 2012. 3)를 참고할 수 있다.
- 78) 신선경, 앞의 글, 59-62면.
- 79) 김성규, 앞의 글, 7면. 특히, 글쓰기의 경우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허재영, 「대학 작문교육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어문학』 104, 2009. 6, 21면). 물론 글쓰기 평가에 대한 회의적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김성숙, 「미국의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과 평가」, 『작문연구』 6, 2008. 6, 102-3면.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은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내용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서울대학교 교양과목 교재출판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편, 『대학국문선』, 을유문화사, 1954.
- 서울대학교 교양과목 교재출판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편, 『개정판 대학국문선』, 을유문화사, 1955.
- 서울대학교 교양과목 교재출판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편, 『신판 대학국문선』, 을유문화사, 1956.
- 교양교재편찬위원회 국어분과위원회 편,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작문분과위원회 편, 『대학작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 서울대학교 대학국어작문편찬위원회, 『대학국어작문(1)·『대학국어작문(2)』,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서울대학교 글쓰기의기초 편찬위원회 편, 『글쓰기의 기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 단행본 및 논문, 기사

- 강명숙,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김경남, 「대학의 글쓰기에서 학문적 글쓰기 교과 의 위상」, 『한국언어문학』 81, 2012. 6.
- 김성규, 「대학 교양 국어과 국어 정책」, 『새국어생활』 22권 2호, 2012 여름.
- 김성숙, 「미국의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과 평가」, 『작문연구』 6, 2008. 6.
- 김인환,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어문논집』 61, 2010. 4.
- 김재춘, 「대학구조개혁과 고등교육 생태계」, 『한국직업자격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 박숙자, 「제도로서의 문학: 1950년대 ‘교양’으로서의 ‘대학국어」,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4.
- 박현희,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사고외표현』 2권 2호, 2009. 11, 165-190면.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70년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송주현, 「대학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발전적 수업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10권 1호, 2016. 3.
- 신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관악어문연구』 30, 2005. 12.
- 안양옥, 「대학에 바란다: 위기의 대학, 기회의 대학」, 『대학교육』 175, 2012.
- 이상갑, 「대학 어문 교육의 방향」,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1999. 2.
- 이상태, 「대학 교양 국어 시행의 현황」,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11.
- 이상혁, 「대학 글쓰기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 과정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33.
- 이운빈, 「대학 신입생 대학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 2012. 3.
- 이운빈,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대안적 교육 방안 검토」, 『작문연구』 24, 2015. 3.
- 임흥배,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글쓰기 교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 기초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창간호, 2005. 11.
- 정희모, 「작문 연구의 방향과 전망」, 『작문연구』 18, 2013. 7.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설정과 지식 정보화 시대의 대응」, 『이화어문논집』 36, 2015. 8.
- 조미숙, 「교양과목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그 흐름과 전망」, 『새국어교육』 80, 2008. 12.
- 조미숙, 「교양국어 교육 변천과정 연구」, 『인문연구』 71, 2014. 8.
- 주재우, 「대학의 국어교육 교재 구성 원리 연구」, 『작문연구』 30, 2016. 9.
- 천정환,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2010. 8.
- 최경호·박정미, 「대학 교양국어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 『국어문학』 54, 2013. 3.
- 허재영, 「대학 작문교육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어문학』 104, 2009. 6.

- 「대학교양교육 반성의 소리 높다」, 『동아일보』, 1963. 5. 27.
- 「서울대학교 교양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1989.
- 「교양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1995.
- 「2001년도 ‘대학국어’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1.
- 「기초교양교육 현황분석과 발전과제 탐색 연구 - 『학문의 기초』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6.

자료 1.

사고와 표현 영역 필수 지정 현황(2016년 1학기 현재)

단과대학	지정 현황		
	필수과목	학점	비 고
인문대학	[1-1] 글쓰기의 기초(3)	3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1-1] 글쓰기의 기초(3), 제1영역과 제2영역 중에서 1개 교과목 선택(3)	6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2] 글쓰기의 기초	3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 또는 글쓰기의 기초 중 1과목	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공학 전공)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단과대학	지정 현황		
	필수과목	학점	비 고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1-2] 글쓰기의 기초 [2-1] 말하기와 토론 [4-2] 과학과 기술 글쓰기	9	
공과대학 (조선해양 공학과)	[1-2]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중 1과목	3	
공과대학 (에너지자원 공학과)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	3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 또는 글쓰기의 기초 중 택 1	3	
농업생명과학 대학 인문계 (농경제사회학 부)	[1-2] 글쓰기의 기초(3)	3	
농업생명과학 대학 자연계	[1-2] 글쓰기의 기초(3)	3	
미술대학	[1-1]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사범대학 (교육학과· 윤리교육과· 국어·외국어· 사회교육계· 체육교육과)	[1-1] 글쓰기의 기초(3)	3	• 단,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2] 글쓰기의 기초(3)	3	

단과대학	지정 현황		
	필수과목	학점	비 고
사범대학 (과학교육계)	[1-2]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이동학부)	[1-1] 글쓰기의 기초(3) [2-1] 사회과학 글쓰기(3)	6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2] 글쓰기의 기초(3) [2-1] 과학과 기술 글쓰기(3) [3-1] 말하기와 토론(3)	9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1-2] 글쓰기의 기초(3) [2-1] 사회과학 글쓰기 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3) [3-1] 말하기와 토론(3)	9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1-1] 과학과 기술 글쓰기(3)	3	
의과대학 (의예과)	[1-1] 말하기와 토론(3) [1-2] 과학과 기술 글쓰기(3)	6	
음악대학	[1-1]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자유전공학부	[1-1]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 통합과정 (학사과정)	[1-2] 제1영역에서 1개 교과목 선택	3	• 제1영역: 글쓰기의 기초,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 권장: 과학과 기술 글쓰기

자료 2: 2016년 1학기 ‘글쓰기의 기초’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글쓰기의 기초		
담당교수		연락처	
면담시간	추후 공지	면담장소	추후 공지
교과목의 목표	<p>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글쓰기의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글쓰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p> <p>첫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글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익힌다.</p> <p>둘째, 수강생의 글쓰기 실습과 담당 교수의 첨삭 및 대면 지도를 통하여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p> <p>셋째, 기말 보고서를 준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킨다.</p>		
교 재	<p>서울대학교 글쓰기의기초 편찬위원회, 《글쓰기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글쓰기의 기초》 계열별 워크북(e-TL 자료실 탑재)</p>		
과 제	글쓰기 실습 과제 및 수강반별 별도 과제		
성적산출 방법	<p>* 성적 산출 방식: 실습 및 과제(25) + 수업 참여도(25) + 발표(10) + 기말 보고서(10) + 기말고사(30)</p> <p>- 과제(기말 보고서 포함)와 발표는 성실성과 정확성, 창의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p> <p>- 수업 참여도는 출석, 수업 준비, 토론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p> <p>- 기말고사는 학기말에 수강생 전체 공통 시험(30%)으로 치른다.</p> <p>- 모든 강좌는 상대평가로 처리한다. (단, 1학년과 타 학년이 섞여 있는 경우 구별하여 성적을 산출한다.)</p>		
실습 수업과 첨삭 지도	<p>학생들이 수행한 글쓰기 과제와 실습에 대해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개별 첨삭, 조별 첨삭, 대표 첨삭 등 다양한 방식의 첨삭 지도가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들은 담당 교수 및 강의조교와의 면담을 통해 개인 편차를 고려한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다.</p>		

주	주제	강의 및 실습 내용
1	오리엔테이션	* 교과목 성격과 강의의 구성, 성적산출 방법, 강의내용 설명
	대학생활과 글쓰기	* 학문의 의의와 대학 리포트의 성격
2	글쓰기 실습(1)	* 자기 소개의 글쓰기
	글쓰기의 과정	* 주제 잡기 및 글쓰기 실습(1) 첨삭
3	글쓰기의 과정	* 자료의 정리와 활용 및 자료검색의 실제
	글쓰기의 과정	* 개요 짜기, 문단의 구성
4	글쓰기의 윤리	* 윤리적 태도의 중요성과 인용법(인용, 주석, 참고문헌 작성)
	발표 지도 및 학습 내용 적용	* 소논문 주제 선정 토론 및 점검
5	글쓰기의 과정	* 문장 쓰기, 글디듬기
	글쓰기 실습(2) & 첨삭 지도	* 1차 개요 작성의 글쓰기 실습(2) 및 첨삭
6	글쓰기의 방법	* <정의하기> - 정의의 원리와 확장
	글쓰기 실습(3)	* 텍스트 읽기를 통한 문제의식 추출과 이를 활용한 정의 글쓰기 실습(3)
7	글쓰기의 방법	* <분류/비교하기>와 리포트에서의 활용 방법
	글쓰기의 방법	* <논증하기>와 문제의식의 구체화
8	글쓰기 실습(4)	* 분류/비교/논증 중 선택하여 글쓰기 및 글쓰기 실습(3) 첨삭
	발표지도	* 2차 개요 작성 및 상호 토론
9	글쓰기 상담	* 글쓰기 실습(4) 개별 첨삭 지도
	글쓰기 상담	* 글쓰기 실습(4) 개별 첨삭 지도
10	글쓰기의 방법	* <서사/묘사하기>와 글의 종류별 활용 방법
	글쓰기의 실제	* 감상과 비평(서평 및 영화평)
11	글쓰기의 실제	* 텍스트의 분석 방법과 주제적 이해의 중요성
	글쓰기의 실제	* 보고와 제안

주	주제	강의 및 실습 내용
12	글쓰기 실습(5)	* 감상과 비평/보고와 제안 중 선택하여 글쓰기 실습(5)
	발표지도	* 소논문 발표 관련 토의 및 준비
13	발표와 토론 1	*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발표와 토론 2	
14	발표와 토론 3	*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발표와 토론 4	
15	발표와 토론 5 & 종합토론	*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 종합토론
	기말고사	* 학기말 종합시험 (6월 11일 토요일 10:00~12:00, 장소: 추후공지)